

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

2025년 2분기



울산테크노파크
Ulsan Technopark

'25년 2분기 울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

작성일자	2025.06.03.	문의처	울산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052) 219-8728
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「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」는 중소벤처기업부, 울산광역시 소관 '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'의 일환으로 '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(테크노파크)'에서 작성·배포합니다.

01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

울산

□ (중소기업 밀집지역¹⁾ 현황) 전국 중소기업 밀집지역 2,077개 중 울산 밀집지역은 35개로 1.7%를 차지

- (시군구별)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전체 48.6%인 1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북구, 남구 순으로 밀집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
- (유형별)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형 중 산업단지(77.1%)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(8.6%)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

〈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(전국, 울산) 〉

(단위 : 개, %)

유형 시군구	벤처기업 집적시설	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	신기술 창업집적지역	산업단지	지식산업센터	지역특화 발전특구	기타	합계	비중
전국	103	39	23	995	906	9	2	2,077	100.0
울산	1	3	0	27	4	0	0	35	1.7
중구	0	1	0	0	2	0	0	3	8.6
남구	1	1	0	2	1	0	0	5	14.3
동구	0	0	0	1	0	0	0	1	2.9
북구	0	0	0	8	1	0	0	9	25.7
울주군	0	1	0	16	0	0	0	17	48.6

* 주: 2025년 모니터링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

1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, 신기술 창업집적지역,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,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의미

02

중소기업 밀집지역 지표별 현황

울산

□ (전년동기 대비 모니터링²⁾ 결과) 2025년 2분기 기준, 울산 내 35개 밀집지역 중 2개 지역 (5.7%)이 '주의(의심)단계'로 분류되었으며, 이는 전국 평균(28.1%)보다 낮은 수준임.

○ (총사업장수) 울산광역시 내 양호/주의(의심) 단계 밀집지역의 사업장은 전년 동기('24년 2분기) 대비 각각 +0.3%/-2.6%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.

- 전국 양호/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 사업장은 같은 기간 +0.1%/-5.2% 변동을 보여, 울산은 양호단계에서 전국 대비 더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, 주의(의심)단계에서는 감소폭이 전국보다 작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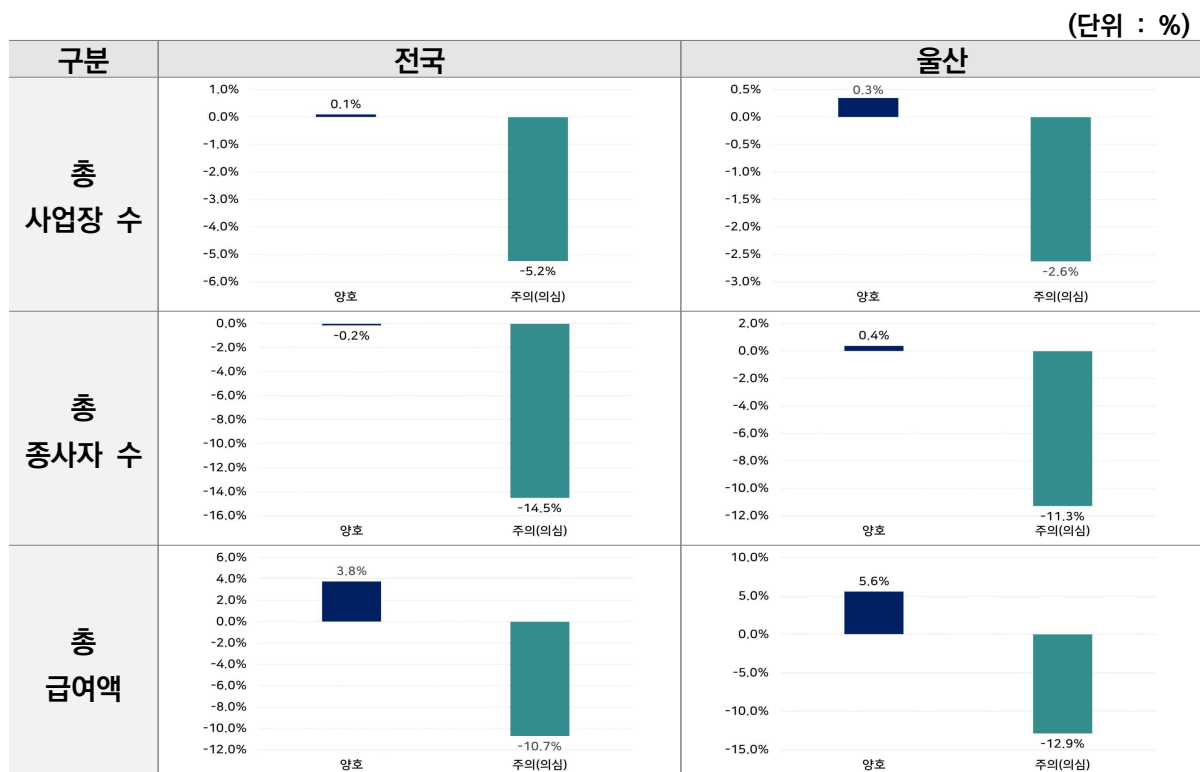
○ (총종사자수) 울산광역시 내 양호/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('24년 2분기) 대비 각각 +0.4%/-11.3%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.

- 전국 기준으로는 양호/주의(의심)단계 종사자 수가 -0.2%/-14.5% 변동해, 울산은 양호 단계 증가폭이 전국보다 크고, 주의(의심)단계에서는 감소폭이 전국보다 작게 나타남.

○ (총급여액) 울산광역시 내 양호/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의 총급여액은 전년 동기('24년 2분기) 대비 각각 +5.6%/-12.9%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.

- 전국 기준으로는 양호/주의(의심)단계 총급여액이 각각 +3.8%/-10.7% 변동해, 울산은 양호 단계에서 전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, 주의단계에서는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.

〈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필수지표별 현황(전년동기대비) 〉



2) 「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별표2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양호, 주의 단계로 구분함

03

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현황

울산

□ 울산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위기징후 단계별로 뚜렷한 업종 구조 차이를 보임. 특히 양호단계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, 반면 주의(의심)단계 지역은 비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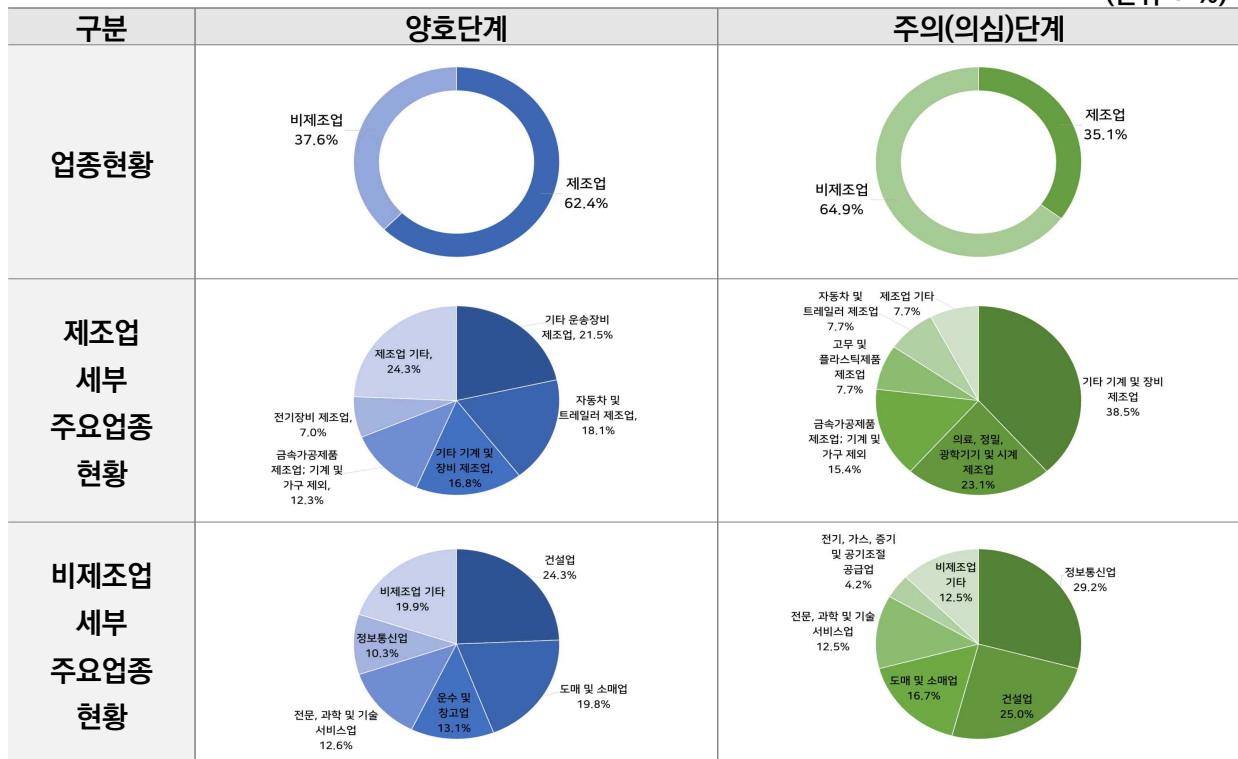
○ (업종 현황) 울산지역 양호단계 밀집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62.4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주의(의심)단계의 35.1%에 비해 약 27.3%p 높은 수치임. 반면, 비제조업 비중은 주의단계에서 64.9%로, 양호단계(37.6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- (제조업 내 주요 업종) 양호단계 밀집지역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의 비중이 높아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는 반면, 주의(의심)단계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제조업(C27)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종이 분포되어 있어, 업종이 세분화되고 분산된 양상을 보임.

- (비제조업 내 주요 업종) 울산지역 양호단계 밀집지역은 건설업, 도소매업, 운수·창고업, 전문·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, 산업 구조의 균형성과 업종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남. 반면, 주의(의심)단계는 정보통신업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,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, 업종 편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.

〈 울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 업종 현황 〉

(단위 : %)



04

종합 및 시사점

울산

- **(밀집지역 주요 특징)** 2025년 2분기 기준, 울산지역의 양호단계 밀집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특히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. 반면, 주의(의심)단계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업종 다양성도 제한적이며, 소규모 매출 및 고용 중심의 기업 구조가 다수 분포함.
- **(산업)** 울산지역 제조업 비중은 양호단계에서 62.4%, 주의단계에서 35.1%로, 제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위기징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임을 시사함.
 - **(매출)** 울산 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 내 5억 원 이하 매출 기업 비중은 약 20.7%로 나타나, 영세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. 반면, 양호단계에서는 약 33.0%가 5억 이하 매출 규모로 구성되어, 전체적으로 소규모 매출 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.
 - **(고용)** 고용 측면에서도 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은 종사자 수 1~4인 기업 비중이 4.27%, 양호단계는 2.82%로,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용 기업의 비중이 낮지 않은 수준임. 이는 울산 밀집지역 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, 고용 창출력이나 성장 여력이 제한된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, 고용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.

□ **(주요 시사점)**

- **(밀집지역 분석)** 2025년 2분기 위기징후 단계 분류 결과 주의(의심)단계 밀집지역은 주의단계 밀집지역은 세영이노세븐(중구),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(울주군) 총 2곳

시군구	밀집지역명	위기징후 분류지표	사업장수	종사자수	총급여
중구	세영이노세븐	2	X	○	○
울주군	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	2	X	○	○

- 세영이노세븐(중구),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(울주군)는 3개분기 연속 주의단계로 분류